

## 강진서 럭비 최강 가린다

19일까지 '대통령기 럭비대회'

중·고·대·일반부 22개팀 열전

'제20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대회'가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강진 종합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4개팀, 고등부 8개팀, 대학부 5개팀, 일반부 5개팀 등 총 22개 팀 럭비선수와 임원 1천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토너먼트 방식인 이번 럭비대회는 10일 고려대와 단국대 대학부 럭비경기를 시작으로 대학부 결승은 14일, 일반부 결승은 17일, 중·고등부 결승은 19일에 치러지는 등 모두 총 20경기가

열린다.

대회 개최 기념 이벤트 행사로 오는 12일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관내 어린 이집 아동 120여명과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어린이 럭비공 굽기대회도 열린다.

또 강진군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진군청 여성축구단과 이번 럭비대회 심판 경기위원들과의 친선 축구경기가 오는 13일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은 럭비대회 대회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찰 활동을 전개하여 선수들의 건강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강진군은 오는 8월 23일~27일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대회 축 럭비경기를 개최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여수시청 정세영 '태극마크'

인라인롤러 국가대표 뽑혀

정세영(여수시청)이 3년 만에 인라인롤러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재기를 노린 '인라인요정' 꽈채이(안동시청)는 탈락했다.

정세영은 9일 전남 여수 진남인라인롤러 경기장에서 계속된 국가대표 선발전 이틀째 표인 1만m 레이스에서 1위로 끌어안고 2위 이슬(인천 신송)과, 전날 국가대표로 뽑힌 우효숙(청주시청)과 함께 시니어 여자 장거리 부문 국가대표가 됐다.

제기는 시도해온 꽈채이도 장거리 부문 국가대표를 노렸으나 순위권에 들지 못해 탈락되지 못했다.

시니어 남자 장거리 부문에서는 남유종(안양시청)과 김태우(논산시청)이 전날 선발된 손근성(경남도청)과 함께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다음은 나머지 국가대표 명단.

▲주니어 남자 단거리=류현규(경기 동안고) 최봉주(인천 학익고) 임정훈(전주생명 과하고) ▲" 장거리=정윤성(경기 동안고) 최광호(대구 경신고) 조우상(인천 학익고) ▲" 여자 단거리=신소영(대구 혜여고) 안이슬(청주여상) 최고은(경기 한솔고) ▲" 장거리=조소윤(대전체고) 유가람(경기 귀인중) 서소희(경기 동안고) ▲" 시니어 남자 단거리=엄한준(경남도청) 강경태(대구시체육회) 이명규(안양시청) ▲" 여자 단거리=임진선(안양시청) 임주희(논산시청) 이다솜(인천서구청)

## 상승세 한국여자골프,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우승 도전

이대회 통산 3승 박세리 자신감...신지애도 샷 감각 최고조

여름이 다가오면 더욱 힘을 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남자들이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 도전한다.

1955년 시작된 이 대회는 US여자오픈 다음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저대회로 2005년부터는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스의 볼록 골프장(파72.6천641야드)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신지애(21·미래에셋)가 HSBC 위민스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후 한동안 우승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던 대

국 자마들은 5월 사이버이스 클래식 오지영(21·SK텔레콤)이 차례로 승전보를 전하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작년에 박인비(21·SK텔레콤)가 US여자오픈, 신지애가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우승하며 4개 메이저대회 중 2개를 제패했던 만큼 이번 맥도널드대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동안 20대 초반의 신진세력들이 우승 후보였지만 이번에는 맏언니격인 박세리(32)를 빼놓을 수 없다.

박세리는 지난 주 열린 스트레이트 팝 클래식에서 후배 김인경에게 우승컵을 넘겨 주고 2위에 머물렀지만 절묘한 아프로치샷과 퍼트 감각으로 전성기 못지 않은 뛰어난 경

기력을 보여줘 맥도널드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박세리는 이 대회에서 LPGA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뿐 아니라 2002년과 2006년에도 정상을 차지해 인연이 깊다.

더욱이 1998년과 2002년과 달리 볼록골

프장에서 열린 2006년 대회 때도 우승컵을

들어올려 코스 적응은 3년 전에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다 '엄마 골퍼' 한희원(31·활라코리아)과 장타자 이지영(24) 등 LPGA 투어 중고참들의 샷 감각이 좋아 위너스 멤버 클럽

에 입장을 신지애, 오지영, 김인경에다 김송희(21), 최나연(22·SK텔레콤) 등과 함께 상위권을 점령할 태세다.

김인경은 스테이트 팝 클래식 우승으로 시즌 상금 랭킹 2위(71만3천달러), 세계랭킹 8위로 뛰어올라 상승세를 타며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작년 대회에서는 것을 통과하지 못했던 김인경은 "어프가 긴 골프장이어서 티샷을 페어웨이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군단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선수는 역시 로라나 오초아(멕시코)다.

오초아는 올 시즌 유일하게 2승을 올린 선수이지만 언제나 1위 자리를 지키던 상금랭킹에서 3위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8차례 대회에 출전, 텁10에 들지 못한 것은 세번 뿐이었기 때문에 그나 나쁜 성적도 아니지만 절대 강자의 위상을 지키려면 이제는 큰 상금이 걸린 메이저대회의 우승컵이 필요하다.

이 밖에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크리스티 키(미국)와 텁10에 여섯차례나 들었지만 우승이 없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루카 2년차인 올레 다시 승수를 추가한 디렌던 챔피언 청아니(대만)도 우승 후보군이다.

(연합뉴스)

나상우과 이진명은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지역 예선에서 각각 3언더파 141타와 2언더파 142타에 그쳤다. 8언더파 136타를 기록한 제임스 니티스(호주)가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마차를 탔다.

전 세계 랭킹 1위 데이비드 뒈발(미국)이 이 지역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나가게 됐고 데이비스 러브 3세(미국)는 함께 138타로 본선행이 좌절됐다.

(연합뉴스)

우슈 김지웅 남도 금

亞청소년선수권

한국 우슈의 기대주 김지웅(16)이 제5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김지웅은 9일 중국 마카오에서 열린 대회 세째 날 표현위주 종목인 투로 남자 A조 남도에서 8.85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대한우수협회가 알려왔다.

또 겨우기 종목인 산타에서는 52kg급 박성욱(17), 70kg급 유현(18)이 각각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 한국, 말레이 꺾고 2승

주니어월드컵 하키선수권

한국 주니어 하키 대표팀이 제5회 세계남자주니어월드컵 하키선수권대회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2연승을 올렸다.

한국은 8일(이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조호르에서 열린 대회 C조 조별리그 2일째 경기에서 말레이시아를 2-0으로 이겼다.

강문규(조선대)와 정윤상(한국체대)이 전반 5분과 후반 20분 각각 페널티코너를 성공시켰다. 같은 C조의 스페인은 미국을 9-0으로 제압했다.

한국은 11일 오후 8시 스페인과 세 번째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 샤라포바 잔디코트 첫 승

프로테니스투어 애곤클래스

부상에서 회복해 실전 감각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러시안 뷰티' 마리야 샤라포바(73위·러시아)가 올해 처음 밟아온 잔디코트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샤라포바는 9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애곤클래스 1회전에서 스페인파니 뒤티아(103위·캐나다)를 2-0으로 이겼다.

## 스포츠 투데이

10일(수)

▲NHL 스탠리컵 6차전 <디트로이트 : 피츠버그>(09:00·SBS스포츠)

▲NBA 파이널 3차전 <올랜도 : LA레이커스>(10:00·MBCESPN)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오릭스>(17:00·SBS스포츠)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대한민국 : 사우디>(19:45·MBC·SBS스포츠·Xports)

▲프로야구 <기아 : 히어로즈>(18:15·ETV), <LG : 두산>(18:10·KBSN SPORTS), <한화 : 롯데>(18:30·MBCE-SPN), <삼성 : SK>(18:15·Xports)

## 강한 남자로 만드는

# 센-놈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며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이 세상에는 저절로 그 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전과 같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센놈이 있어 희망을 드립니다. 우뚝 솟으며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간편하며 그녀가 선호하는 강한 사내로 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여 사진은 기재될 수 없습니다.)

상담 070-7786-8710/070-7786-9710

전화 010-5296-4114

글로벌

농협 569-12-034626(배의자)

## 이번엔 맥도널드 먹어볼까

### 상승세 한국여자골프,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우승 도전

이대회 통산 3승 박세리 자신감...신지애도 샷 감각 최고조

여름이 다가오면 더욱 힘을 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남자들이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 도전한다.

1955년 시작된 이 대회는 US여자오픈 다음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저대회로 2005년부터는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스의 볼록 골프장(파72.6천641야드)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신지애(21·미래에셋)가 HSBC 위민스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후 한동안 우승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던 대

국 자마들은 5월 사이버이스 클래식 오지영(21·SK텔레콤)이 차례로 승전보를 전하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작년에 박인비(21·SK텔레콤)가 US여자오픈, 신지애가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우승하며 4개 메이저대회 중 2개를 제패했던 만큼 이번 맥도널드대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동안 20대 초반의 신진세력들이 우승 후보였지만 이번에는 맏언니격인 박세리(32)를 빼놓을 수 없다.

박세리는 지난 주 열린 스트레이트 팝 클래식에서 후배 김인경에게 우승컵을 넘겨 주고 2위에 머물렀지만 절묘한 아프로치샷과 퍼트 감각으로 전성기 못지 않은 뛰어난 경

기력을 보여줘 맥도널드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박세리는 이 대회에서 LPGA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뿐 아니라 2002년과 2006년에도 정상을 차지해 3년 전에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다 '엄마 골퍼' 한희원(31·활라코리아)과 장타자 이지영(24) 등 LPGA 투어 중고참들의 샷 감각이 좋아 위너스 멤버 클럽

에 입장을 신지애, 오지영, 김인경에다 김송희(21), 최나연(22·SK텔레콤) 등과 함께 상위권을 점령할 태세다.

김인경은 스테이트 팝 클래식 우승으로 시즌 상금 랭킹 2위(71만3천달러), 세계랭킹 8위로 뛰어올라 상승세를 타며 2주 연속 우